

향가 《처용가》의 독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김영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이란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48페이지)

민족문화유산은 선행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이며 그것을 옹계 평가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향가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로서 그것을 옹바로 독해하고 정확히 평가하는것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언어문학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향가는 리두식표기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향찰로 씌여진 우리 나라의 독특한 가요형식이며 오랜 력사를 가지고 전해오는 귀중한 민족문학유산의 하나이다.

향가에는 당시 작자의 세계관과 미학관, 창작당시의 시대상과 언어상태가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연구는 우리 문학사와 언어사의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향가와 관련한 연구는 일찍부터 관심사로 되어왔는데 20세기이후 독립적인 저술로 되어 나오기 시작하였다.

① 량주동 : 《조선고가연구》(1942년)

② 홍기문 : 《향가해석》(1957년)

③ 정렬모 : 《향가연구》(1965년)

④ 류렬 : 《향가연구》(2005년)

그런데 이 저술들에서는 향가의 독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있어 향가 독해에서는 아직 더 논의하여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오늘까지 전하는 향가 가운데서 많이 논의되는것의 하나로는 《처용가(處容歌)》를 들수 있다. 그것은 이 노래가 정음자표기와 향찰식표기를 함께 가지고있어 그 대비를 통하여 향가 독해의 일정한 실마리를 찾을수 있기때문이다.

향찰식표기로 된 《처용가》와 관련하여 《삼국유사》 권2의 《처용랑(處容郎)》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다.

신라의 헌강왕(憲康王)이 개운포에 나가서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다가에서 점심참에 쉬고있었는데 졸지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여 그만 길을 잃게 되었다.

왕이 이상히 여겨 여러 신하들에게 까닭을 물었더니 그들이 동해의 룡의 작란이어서 좋은 일을 하여 그것을 풀어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왕이 곧 근방에 절간을 세우라고 지시하였더니 동해의 룡이 기뻐 아들 일곱을 데리고와 왕의 덕행을 찬미하면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왕이 룡의 아들 하나를 서울로 데리고와서 정사를 보좌하게 하고 이름을 처용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처용의 안해가 지나치게 곱기때문에 역병귀신이 탐이 나서 사람으로 변신하고는 밤마다 그 집에 가서 몰래 데리고 갔다. 처용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이 부자리속에 두사람이 누워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본 처용은 기가 막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만 물러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실으면서 그가 부른 노래를 소개하였는데 그것이 《처용가(處容歌)》이다.

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二盼隱吾下於叱古二盼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

《처용가》는 처용무(處容舞)와 함께 오랜 세월 세대를 이어 전해졌는데 15세기말에 와서는 《악학궤범》 권5에서 그것을 정음자로 표기하여 소개하였다.

東京 불곤 드래 새도록 노니다가
드러 자리 룰 보니 가르리 네히로새라
아으 둘흔 내해어니와 둘흔 뉘해어니오

이처럼 《악학궤범》에서는 《삼국유사》에 향찰표기로 실린 《처용가》를 정음자로 소개하면서 마지막구절인 《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를 빼놓고있다.

《삼국유사》와 《악학궤범》에 실린 《처용가》를 대비해보면 향찰의 표기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표상을 가질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지난날 많은 학자들은 향가에 대한 독해에서 《처용가》의 정음자표기와 향찰식표기와의 대비를 시도하게 되었다.

《처용가》에 반영된 향찰식표기에 대한 독해에서는 학자에 따라서 견해상차이가 적지 않았다. 4가지 서로 다른 독해정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식불 불기 드래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 보곤 가르리 네히어라
둘흔 내해엇고 둘흔 뉘해언고
본디 내해다마론 아사놀 엇디헝리고 ①

동경 불기 드래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 보곤 가로리 너히어라
두후른 내하엇고 두후른 누기하언고
아세 내하이다마론 바사놀 엇데헝리고 ②

동경 불곤 둘 양아 드더 노니다가
들어 식침애 보건 드리 어이 네히어라
두홀은 내히엇고 두홀은 누기힌고
본디 내히이어믄론 아스몰 어이 헝리고 ③

서불(불) 불기 득리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 보곤 가롤이 너히어라
 두홀은 내하어시고 두홀은 누기하언고
 미디 내하히다 마론 아스놀 엇디 흐리고 ④

무엇보다먼저 《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에 대한 독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자. 《악학궤범》이 전하는 《東京》이 한자말표기이겠는가 또는 고유한 우리 말의 향찰식표기이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①에서는 《東京》을 《식불》의 표기로 보면서 경주의 옛이름이라고 하였다.

《식불》의 《식》은 《東》을 가리키는 말이며 《불》은 《國, 原》을 가리키는 말로서 경주를 가리켜 《식불》이라고 하였는데 고려 성종 6(987)년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경주를 한자말표기인 《東京》이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향가에 나오는 《東京》은 틀림없이 《식불》의 향찰식표기라는것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는 ④를 들수 있는데 여기서는 《東京》을 《서불》의 표기로 보면서 그것은 《徐那伐, 徐羅伐, 徐伐》로도 표기된다고 하였다. ④의 독해에서 주목되는것은 이 시기에 아직 겹모음이 생기지 않았다는데로부터 《식》가 아니라 《서》로 본것이며 또한 우리 말의 력사적어음현상을 고려하여 《불》이 아닌 《불(불)》로 본것이다. 이것은 언어사적건지에서 당시의 어음변화현상을 추정하게 한다.

②에서는 6세기이후 신라가 국토팽창을 하면서 각지에 중원경(中原京), 북원경(北原京), 서원경(西原京), 남원경(南原京) 등 소경(小京)을 두고 경주를 동경(東京)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니 《처용가》에 나오는 《東京》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미 고착되어 널리 쓰이던 한자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③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있다.

또한 《明期》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것인데 《악학궤범》에서는 《불근》으로 기록하고있으나 많은 학자들이 《明期》는 《불기》의 표기로 보는것이 옳다고 주장하고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향찰식표기에서는 반의반음역이 보편화되어있어 《明》은 《불다》를 의역한것으로, 《期》는 《불기》의 《기》를 음역한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특히 ②에서는 모음 《이》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가 규정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귀밝이술, 숨살이꽃, 액막이굿》 등의 례를 들고 《귀밝이, 숨살이, 액막이》가 각각 뒤에 오는 말인 《술, 꽃, 굿》의 규정어로 되듯이 《불기》도 《돌》에 대한 규정어로 쓰일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향가에서는 《불기》를 《明期》로 적는것과 같은 반의반음역식의 표기가 상당한 정도로 보편화되어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③에서는 《明期》를 《불기》가 아니라 《불근》으로 보고있는데 이것은 《악학궤범》의 정음자표기와 일치한다. 여기서는 《期》를 자전에서 《限也》라고 하였는바 《限》은 《이내》(以內) 곧 《안》이며 《안》과 《은》은 음이 비슷한것으로 추정되기때문에 《明期》를 《불근》의 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期》를 《限》과 결부시키고 더우기 《안》과 《은》의 음이 비슷하다는것을 전제로 해서 《明期》를 《불근》의 표기로 보는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것이 《악학궤범》의 정음자표기와 일치하고있는 점에서 전혀 무시할수는 없는 주장이다.

또한 《月良》을 《드래》 또는 《드리》의 표기로 보는것은 반의반음역으로서 《良》을 《애》,

《이》의 음역으로 보는것은 리두에서 《良中》이 《아히》의 표기로서 위격표시에 많이 쓰여온 사정을 념두에 둔 독해로 보인다.

또한 《夜入伊》를 《밤드리》의 표기로 본데 대해서는 대부분이 견해상일치를 보이고있으나 유독 ③에서는 《月良夜入伊》를 《양아 드더》의 표기로 보는 색다른 견해를 내놓고있다. 즉 ③에서는 《月良夜入伊》에서 《月良》을 한 단어의 표기로 보는것이 아니라 《月》과 《良》을 가르고 《良夜》라는 말을 상정하면서 《月》은 《돌》의 표기로, 《良夜》는 《깊은 밤》 또는 《달 밝은 밤》의 의역으로, 《入伊》를 《드더》의 표기로 보고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入》자에는 《進也》, 《收也》, 《得也》, 《沒也》, 《致也》, 《費也》, 《用也》, 《從也》 등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從也》, 《得也》의 뜻으로 해석하여 《入》을 《드디》로 보고 《伊》를 《彼》의 뜻인 《더》로 새기여 《드디》의 련용형인 《드더》의 표기로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그리하여 《月良夜入伊》를 《돌 양아 드더》의 표기로 보고있다.

그러다나니 《깊은 밤》 또는 《달 밝은 밤》이라는 뜻을 가진 《양아(良夜)》라는 한자말을 설정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러한 한자말이 쓰인 다른 자료가 없는것으로 하여 이러한 독해에 대해서는 믿음성이 극히 적게 되었다.

또한 《遊行如可》의 경우에 《遊行》이 《노니》의 의역으로 되고 《如可》는 리두에서 전통적으로 《다가》의 표기로 되어온 사실에 비추어 《노니다가》의 표기로 보는데 대해서는 독해상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入良沙寢矣見昆脚烏伊四是良羅》에 대한 독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자.

《악학궤범》에서는 《入良沙寢矣見昆》에 해당하는 부분을 《드러 자리를 보니》로 전하고있다.

그리하여 《入良沙寢矣見昆》을 《드러사(사) 자리 보곤》으로 독해하는데서 대부분의 저술들이 일치하고있다.

《入良沙》의 경우에 《入》은 의역으로서 《들》의 표기로 되며 《良》은 《良中》이 위격토인 《아히》의 표기로 되는 경우를 념두에 둘 때 《어》의 표기로 될수 있다고 보고 《沙》는 강조로 《사(사)》의 음역자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寢矣》는 반의반음역에 의한 《자리》의 표기로, 《見昆》도 역시 반의반음역에 의한 《보곤》의 표기로 볼수 있다는것이다.

이렇게 독해하는데서 대부분의 저술들에서는 견해상차이가 없는데 ③에서만은 《入良沙寢矣》를 《入良》과 《沙寢矣》로 갈라보면서 각각 《들어》와 《식침애》로 독해하고있다.

여기서는 《沙寢》의 《沙》는 《新》의 뜻인 《식》로서 《식침》은 곧 《새방》의 뜻으로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寢(침)》이라는 한자말이 널리 쓰이고있던것으로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표기의 다른례를 찾지 못하고있는것이 문제로 된다.

《見昆》의 독해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저술들에서 이것을 《보곤》의 표기로 보고 《보니까》의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④에서는 《見昆》을 《보곤》의 《뜻-소리웁김》이라고 하면서 《-곤》은 이음로 《-고》에 도움로 《-ㄴ》이 붙은 형태로서 뜻은 《-고》를 강조하는것이 아니라 《보니》, 《보니까》를 의미하는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③에서는 이것을 《보건》의 표기로 보면서 현대어의 《보건대》와 같은 뜻이라고 하였다.

《脚烏伊四是良羅》의 독해에도 견해상 차이가 있다.

①에서는 이 구절을 《가꺠리 네히어라》로 독해하고있는데 다른 저술들에서도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 우선 《脚烏伊》는 《脚》의 뜻인 《가꺠, 가로》의 변종인 《가꺠, 가꺠》에 주격로 《이》가 붙은 《가꺠리》의 표기로 본것이다. 이것은 《악학궤범》에 소개된것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③에서는 《脚烏伊》를 《脚》와 《烏伊》로 갈라보고 《脚》은 《ㄷ리》의 의역이며 《烏伊》는 《어이》의 표기로 보고있다. 《烏伊》와 관련해서 《광운(廣韻)》에서 《烏》는 《安(어찌)也》라 하였고 《전운(正韻)》에서 《烏》는 《何也》라고 하였으며 《伊》는 음의 《이》나 새김 《是》의 뜻인 《이》를 표기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良羅》를 《어라》의 표기로 보는데서는 다른 저술들과 차이가 없다.

그리하여 ③에서는 《脚烏伊四是良羅》가 《ㄷ리 어이 네히어라》로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二𪛗隱吾下於叱古 二𪛗隱誰支下焉古》에 대한 독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자. 《악학궤범》에서는 이것을 《둘흔 내해어니와 둘흔 뉘해어니오》로 대응시키고있다.

우선 《二𪛗隱》에 대해서 《악학궤범》에서는 《둘흔》으로 대응시키고있는데 ①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있다.

그러나 ②에서는 그것을 《두후른》으로, ③과 ④에서는 《두홀은》의 표기로 보고있다. 그 근거로 《二》에 대응하는 우리 말이 본래 《둘》이 아니라 《두불》이었다는것을 들고있다.

○ 二曰 途亭 (《제림류사》)

○ 二 都卜二 (《조선관역어》)

《二》에 대응하는 《途亭》과 《都卜二》는 《두불》의 표기로서 본래 두 음절어로 추정되는 데 초기국문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이였다.

○ 우리 항것 둘히 내 비들 모르시리니 (《월인석보》 8권 95장)

○ 둘흔 精進如意足이니 (《월인석보》 7권 44장)

○ 열 두을 늑꺠 지치여 (《두시언해》 7권 10장)

그리하여 《二𪛗隱》은 《두홀은》의 표기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또한 《吾下於叱古》는 ①에서 《내해엇고》로, ③에서 《내히엇고》의 표기로 보고있다. 《下》로 표기한 《하》는 소유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로서 오래전부터 쓰여온것이다.

○ 내하는 다 細絲官銀이라 (《로결대언해》 하권 13장)

○ 서돈에 꺠니식 꺠여 네하를 사자 (《박통사언해》 상권 30장)

《於叱古》는 《엇고》의 표기로 된다는데 대해서는 모든 저술들이 다 일치한다.

《악학궤범》에서는 《誰支下焉古》를 《뉘해어니오》로 표기하고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대응이라고 할수 없다.

《誰支下》는 《누기하》의 표기로 된다.

그런데 ①에서는 《誰支下》를 《뉘해》의 표기로 보고있다. 즉 《誰》는 《누》의 의역자로 보고 다음과 같은 초기국문문헌자료를 제시하고있다.

○ 師ㅣ 무르꺠 부레 누고 (《월인석보》 21권 195장)

○ 七代之王을 뉘 마꺠리잇가(《룽비어천가》 15장)

그리고 《支》는 《ㅣ》의 표음자로 되어 《誰支》는 《뉘》의 표기로 된다는것이다.

그런데 ②에서는 《誰支》가 많은 방언에서 말하고있는 《누기》의 표기로 된다고 하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③과 ④가 다같다.

《下》가 소유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 《하》라는데 대한 ②의 주장과 ④도 같으나 ①과 ③에서는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해, 혁》로 주장하고있어 얼마간의 차이가 있다.

《焉古》를 토 《언고》의 표기로 보는데서는 견해상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本矣吾下是如馬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에 대한 독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자.

《악학궤범》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①에서는 《본딕 내해다마론 아사놀 엇디 혁리고》로 독해하고있으며 ②에서는 《아세 내해이다마론 바사놀 엇데 혁리고》로 해석하고있어 《본딕》과 《아세》, 《아사놀》과 《바사놀》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本矣》를 ④에서 《미디》의 표기로 보고있는것도 차이나는 독해로 된다.

그러면 《本矣》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①에서는 《本矣》의 《本》을 음역한것으로 보고 《矣》는 리두에서 《딕, 되》로 읽히고있는 것을 념두에 두면서 《本矣》를 《본딕》의 표기로 보았는데 그것은 《계림류사》에 나오는 례를 그 근거로 삼고있다.

○ 不善飲曰 本道安里麻蛇

여기서 《本道》는 《본딕》에 대응되는것으로서 이 말은 그 유래가 오래된 말이며 《本矣》가 바로 이 말의 표기로 된다는것이다.

그런데 ②에서는 《本矣》를 서남방언, 동남방언에서 《애당초》의 뜻으로 쓰는 《아시, 아세》 또는 《처음》의 뜻으로 널리 쓰는 《아시》의 의역으로 보고있다.

한편 ④에서는 《本矣》를 의역으로 보면서 《본디》의 뜻을 담은 《미디》(밋이)에 대한 《뜻-소리웁김》이라고 하였다.

《奪叱良乙》에 대한 독해에서 ②는 그것이 《바사놀》로 되는 근거로 《일버스-》를 들고있다.

○ 衆生이 常住를 일버스며 (《월인석보》 21권 40장)

《일버스》는 《일》과 《버스》의 합성어로서 사실상 《계림류사》에서 도적을 《婆兒》라고 한 것은 《버스》를 표기한것이라고 하면서 《버스》는 《아사》의 원형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奪叱良乙》을 《아사놀》의 표기로 보는것보다는 《바사놀》의 표기로 보는것이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향가의 독해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처용가》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향가의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향찰식표기로 된 향가의 독해에서 차이를 줄이고 과학성을 보장하려면 향가를 창작할 당시의 언어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우리 말의 역사적발전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향가의 옳바른 독해를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평가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처용가》, 《월인석보》